

국어 영역

제 1 교시

1

[1 ~ 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역사 탐구 동아리 회장 ○○○입니다. 여러분은 조선 시대의 금속 활자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대답을 듣고) 아는 분이 많지 않네요. 고려 시대에 금속 활자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조선 시대에 금속 활자가 발달했다는 것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선 시대 금속 활자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죠. (그림 제시) 책을 인쇄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시죠? 이 그림은 조선 시대의 주자소라는 관청의 모습을 그린 것인데요, 주자소는 활자를 만들어 책을 인쇄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맡았습니다. 『태종실록』에 ‘임금이 우리나라에 서적이 매우 적어 유생들이 널리 볼 수 없는 것을 염려하여 주자소를 설치하라 명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선 시대에는 유교 이념을 널리 전파하려는 목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금속 활자를 활용한 서적 인쇄를 주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특히 세종 대에는 금속 활자 인쇄술이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사진 제시) 사진에서 왼쪽은 태종 대에 만들어진 조선 최초의 금속 활자인 재미자로 인쇄한 것이고, 오른쪽은 세종 대에 만들어진 금속 활자인 갑인자로 인쇄한 것입니다. 두 활자본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 드리기 위해 사진을 확대해 볼게요. (사진을 확대하며) 갑인자로 인쇄된 것이 글자의 크기와 간격이 훨씬 더 일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종 대에 이르러 활자 하나하나를 맞추어 짜는 조판 기술이 발달하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갑인자는 이전의 금속 활자에 비해 글씨체도 아름다워서 형태적인 완성미를 갖춘 금속 활자로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후대에도 갑인자를 표준으로 삼은 금속 활자들이 꾸준히 제작되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여러 종류의 금속 활자가 30회 이상 주조되었습니다. 조선 시대에 금속 활자가 활발하게 쓰였다는 것은 금속 활자로 인쇄된 책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학연의』, 『효경』과 같은 유교 이념을 담은 책 외에도 『동국정운』, 『농사직설』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책이 금속 활자로 인쇄되어 보급되었습니다. □□박물관에 금속 활자로 인쇄된 책들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으니 방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발표 대상을 친숙한 소재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 ② 발표 중간중간에 자신이 말한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 ③ 발표를 하게 된 소감을 밝히며 발표를 시작하고 있다.
- ④ 발표의 진행 순서를 제시하며 이어질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 ⑤ 발표 내용과 관련된 활동을 권유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2. 다음은 발표를 하기 위해 작성한 메모와 발표 계획이다. 발표 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메모	발표 계획
① 청중이 조선 시대의 금속 활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할 것임.	→ 조선 시대의 금속 활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발표의 목적임을 밝혀야지.
② 청중이 주자소를 생소하게 여길 것임.	→ 그림 자료를 보여 주며 주자소의 역할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지.
③ 국가 차원에서 서적 인쇄를 주도함.	→ 국가가 책을 인쇄하는 관청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는 문헌 자료를 인용해야지.
④ 세종 대에 이르러 조판 기술이 발달함.	→ 사진 자료를 활용해 재미자와 갑인자의 글자 크기와 간격을 비교해야겠어.
⑤ 다양한 서적 인쇄에 금속 활자가 활용됨.	→ 금속 활자로 인쇄된 책들의 사례를 시대에 따라 분류해 제시해야겠어.

3. <보기>는 위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발표 내용을 고려하여 학생의 반응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p>학생 1: 금속 활자는 한 가지뿐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어. 하지만 재미자와 갑인자에 대해서만 설명해서 아쉬워. 조선 시대에 주조된 다른 금속 활자에 대해 찾아봐야겠어.</p> <p>학생 2: 갑인자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 갑인자가 조선 시대 금속 활자라는 건 알고 있었어. 그런데 갑인자가 형태적 완성미를 갖추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럴까?</p> <p>학생 3: 조선 시대 금속 활자의 발달 양상에 대해 알게 되어 유익했어. 세종 대에 금속 활자가 발전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당시의 사회 문화적 배경에 대해 조사해 봐야겠어.</p>
--

- ① 학생 1은 발표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을 언급하며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군.
- ② 학생 2는 발표 내용 일부를 언급하며 궁금한 점을 드러내고 있군.
- ③ 학생 3은 발표를 통해 알게 된 사실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군.
- ④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발표 내용을 통해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을 수정하고 있군.
- ⑤ 학생 1과 학생 3은 모두 발표에서 언급된 정보에 대한 추가 정보를 탐색하려 하고 있군.

[4~7] (가)는 학교 누리집에 실을 글을 작성하기 위한 학생회 학생들의 대화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교지 편집부에서 우리가 했던 가치 참여 펀딩 봉사 활동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했어. 어떤 내용으로 글을 쓸지 정하기 위해 함께 이야기해 보자.

학생 2: 가치 참여 펀딩이라는 말이 생소할 테니까 가치 참여 펀딩의 정의에 대해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우리 학생회에서 그 말의 의미를 정의했었잖아.

학생 3: 좋아. 글을 쓸 때 봉사 활동이 끝난 후 작성했던 활동 보고서 내용도 활용해 보는 게 어떨까? 우리가 썼던 활동 보고서에 봉사 활동 진행 과정이 정리되어 있잖아.

학생 1: 봉사 활동 진행 과정 중에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쓰면 좋을지 좀 더 이야기해 줄래?

학생 3: 우리가 구체적인 봉사 활동의 주제를 선정한 과정을 제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학생 2: 그래. 그리고 봉사 활동 진행 과정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SNS로 홍보한 이유도 제시하면 좋겠어.

학생 1: 다들 좋은 의견 고마워. 정리하자면 가치 참여 펀딩 봉사 활동의 개념, 봉사 활동 진행 과정에 대해 소개하자는 거구나.

학생 2: 가치 참여 펀딩이 아닌 형태로 봉사 활동을 한 사례들도 소개하자.

학생 3: 다른 형태로 봉사 활동을 한 사례들도 소개하자는 거구나. 그러면 글 내용이 더 풍부해질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다른 사례를 소개하면 글의 주제가 불분명해질 거야. [A]

학생 2: 그렇겠다. 우리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만 글에 언급하는 것이 좋겠어.

학생 1: 그럼 다른 봉사 활동 사례는 글에서 제외하기로 하자. 활동 보고서 외에 우리가 더 참고할 만한 자료는 어떤 게 있을까?

학생 3: 봉사 활동 이후에 있었던 가치 공유회에서 친구들이 소감 발표한 것을 정리한 자료가 있어. 봉사 활동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한 내용을 모두 글에 반영하면 좋을 것 같아.

학생 1: 좋았던 점에 대한 의견으로는 어떤 것이 있었지?

학생 2: 가치 참여 펀딩 자체에 대한 평가와 봉사 활동 후 지역 환경이 개선된 것에 대한 평가가 있었어. 그중에서 가치 참여 펀딩 자체에 대한 긍정적 평가 내용을 넣어 보자. 그래야 우리 활동의 특색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

학생 3: 그리고 한 가지 주제의 봉사 활동만 있는 것이 아쉬웠다면 환경 보호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봉사 활동을 운영해 달라고 제안한 참가자도 있었어.

학생 2: 그렇구나. 우리가 다음 봉사 활동을 기획할 때 그런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내용도 글에 추가하면 될 것 같아.

학생 1: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서 나에게 보내줘. 내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초고를 작성할게.

학생 2, 3: 알았어.

(나)

우리 학교 학생회에서는 지난 10월 ‘환경 보호’라는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지역 하천 쓰레기 줍기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의 가장 큰 특색은 그 출발점을 ‘가치 공감을 통한 참여’에 두고 펀딩 방식을 활용한 가치 참여 펀딩을 통해 진행했다는 점이다. 가치 펀딩이란 사회적 가치를 담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의 한 형태를 의미하는데, 학생회에서는 자금을 모으는 대신 학생회가 제시한 가치에 공감하는 학생들의 참여 의사를 모으는 것으로 가치 참여 펀딩을 정의하고, 활동을 기획하였다.

먼저 학생회에서는 ‘환경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봉사 활동의 주제를 선정하였다. ‘지역 하천 쓰레기 줍기’, ‘골목길 청소’, ‘환경 캠페인’ 중에서 회의를 통해 지역 하천 쓰레기 줍기를 주제로 결정했다. 그리고 가치 참여 펀딩의 의의와 봉사 활동 내용을 담은 홍보문을 작성하고, 많은 학생들이 손쉽게 참여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생회 SNS에 게시하여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그 결과 우리 지역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환경 보호’라는 가치에 공감한 친구들이 50명 넘게 모여 다 함께 지역 하천 쓰레기 줍기에 참여하였다. 활동 이후에 가치 참여 펀딩을 함께 한 친구들이 모여 가치 공유회를 열어 소감을 나누었다.

활동 이후 진행된 가치 공유회에서는 같은 가치에 공감하는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며 가치를 공유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다고 가치 참여 펀딩 자체에 대해 만족감을 표하는 반응이 많았다. 다만 ‘환경 보호’라는 가치 외에도 ‘사회적 평등’과 같은 다른 가치를 중심으로 기획된 활동도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학생회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가치에 대해 공감하고 함께 참여하여 그 가치를 실현한다는 의의를 지닌 가치 참여 펀딩을 이어 나갈 것이다.

4. (가)에서 ‘학생 1’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화 이후 수행해야 할 일을 언급하고 있다.
- ② 다른 참여자들의 발언을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다.
- ③ 대화의 목적을 밝히며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 ④ 다른 참여자의 발언을 듣고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 ⑤ 다른 참여자의 발언이 주제에서 벗어난 것을 지적하고 있다.

5.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생 2’는 ‘학생 3’의 발화 내용을 수용하며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있다.
- ② ‘학생 2’는 ‘학생 3’이 제시한 내용을 반박하며 자신이 제시했던 의견을 보완하고 있다.
- ③ ‘학생 3’은 자신의 의견을 여러 가지 제시하고 ‘학생 2’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 ④ ‘학생 3’은 ‘학생 2’가 제안을 하게 된 이유를 질문한 뒤 그 제안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 ⑤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상대의 발화를 재진술하며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있다.

6. (가)의 대화 내용이 (나)에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에서 ‘학생 2’가 홍보 수단 선택의 이유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나)에서 학생회 SNS가 학생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기 용이하다는 내용으로 반영되었다.
- ② (가)에서 ‘학생 2’가 가치 참여 펀딩의 정의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나)에서 가치 펀딩과 가치 참여 펀딩의 의미를 비교하여 제시하는 방식으로 반영되었다.
- ③ (가)에서 ‘학생 2’가 가치 참여 펀딩 자체에 대한 평가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나)에서 같은 가치를 공유한 경험에 대해 만족감을 표하는 반응이 많았다는 내용으로 반영되었다.
- ④ (가)에서 ‘학생 3’이 주제 선정 과정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나)에서 회의를 통해 ‘지역 하천 쓰레기 줍기’가 주제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으로 반영되었다.
- ⑤ (가)에서 ‘학생 3’이 참가자의 제안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나)에서 ‘환경 보호’ 외의 다른 가치를 중심으로 한 활동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을 밝히는 내용으로 반영되었다.

[8 ~ 10] 다음은 작문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학생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 작문 목적: 우리 지역 선사 유적 박물관의 활성화 방안을 건의함.
- 예상 독자: 선사 유적 박물관 관계자

[초고]

안녕하세요. 박물관 운영을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시에 사는 고등학생 □□□입니다. 얼마 전 ○○시 선사 유적 박물관을 방문했는데, 역사적 가치가 큰 문화재가 많은데도 관람객이 적어서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 건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관람객이 적은 원인은 첫째, 우리 지역에 선사 유적 박물관이 있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조차도 가까이에 박물관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둘째, 관람객의 흥미를 끌 만한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해설사와 함께하는 관람 프로그램만 운영되고 있을 뿐 다른 프로그램은 없는 실정입니다. 셋째, 박물관을 이용할 때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박물관의 공간 구조가 복잡하고, 외부 유적 주변에는 편의 시설이 없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효과적인 박물관 홍보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SNS를 활용하거나 지역 사회 및 학교와 연계해 홍보한다면 박물관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박물관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십시오.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이나 연령별 맞춤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관람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박물관 시설을 개선해 주십시오. 관람객의 이동 경로를 고려하여 전시 공간을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휴게 시설이나 물품 보관소 등 편의 시설을 확충해 주십시오.

[A] ○○시 선사 유적 박물관은 옛 인류의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지역 기관의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박물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보기>에 제시된 학생들의 조언에 따라 (나)의 제목을 작성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학생 2: 제목에 학생회가 제시한 가치와 가치 참여 펀딩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자.

학생 3: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좋겠어.

- ① 환경 보호,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
- ② 나의 작은 행동이 환경의 위기를 막는 대안
- ③ 내가 주운 쓰레기 하나, 환경을 위한 보물찾기
- ④ 함께 하는 참여로 우리 모두의 소중한 가치를 지킨다
- ⑤ 푸른 내일을 향한 한 걸음, 공감과 참여로 보호하는 환경

8. 학생의 초고에 활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건의 내용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건의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 ③ 건의의 배경을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제시하고 있다.
- ④ 건의 주체가 문제 해결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제시하고 있다.
- ⑤ 건의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9. <보기>는 학생이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자료 1] 통계 자료

㉠ ○○시 선사 유적 박물관 인지도 ㉡ 박물관 이용과 관련해 개선되기를 바라는 점

(조사 대상: ○○시 시민) (조사 대상: 박물관 관람객)

[자료 2] ○○시 시민 인터뷰

“얼마 전 △△시 박물관에 방문했는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령에 맞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전에 가 보았던 우리 지역 선사 유적 박물관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고, 전시 해설만 있어서 아쉬웠거든요. 우리 지역에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자료 3] 신문 기사

최근 ◇◇미술관의 관람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그간의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미술관은 지역 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해설사 제도를 운영하고 지역 주민을 홍보 대사로 위촉하는 등 지역 사회와 연계된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또한 실감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연령대의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관람이 가능하도록 과학적 분석을 통해 관람 동선을 최적화하여 전시실을 재배치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 ① [자료 1-㉠]를 활용하여, 박물관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의 근거 자료로 제시해야겠군.
- ② [자료 3]을 활용하여, 청소년 해설사 제도와 지역 주민 홍보 대사를 지역 연계 홍보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해야겠군.
- ③ [자료 1-㉡]와 [자료 2]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요구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우리 지역 박물관이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할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근거로 제시해야겠군.
- ④ [자료 1-㉡]와 [자료 3]을 활용하여, 관람객의 이동 경로를 고려하여 전시 공간을 체계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료로 제시해야겠군.
- ⑤ [자료 2]와 [자료 3]을 활용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프로그램과 디지털 콘텐츠 프로그램을 연령별 맞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예로 제시해야겠군.

10. <보기>는 [A]를 고쳐 쓴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반영된 교사의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시 선사 유적 박물관은 옛 인류의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박물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물관은 지역의 명소이자 지역 주민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 ①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은 삭제하고, 박물관이 활성화되었을 때의 기대 효과는 추가해 보자.
- ②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은 삭제하고, 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실현 가능성은 추가해 보자.
- ③ 선사 유적 박물관의 문화적 가치는 삭제하고, 박물관이 활성화되었을 때의 기대 효과는 추가해 보자.
- ④ 선사 유적 박물관의 문화적 가치는 삭제하고, 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실현 가능성은 추가해 보자.
- ⑤ 선사 유적 박물관의 문화적 가치는 삭제하고, 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지역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은 추가해 보자.

[11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절이란 발음할 수 있는 최소의 언어 단위로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중성은 음절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여기에는 모음이 온다. 반면 초성이나 종성은 음절 구성에 필수적이지 않으며 여기에는 자음이 온다. 이때 초성과 종성에 올 수 있는 자음에는 제약이 있다. 초성에는 ‘ㅇ’이 올 수 없으며, 초성과 종성에 올 수 있는 자음의 최대 개수는 각각 1개이다. 이에 따라 ㉠종성에 겹받침이 표기되더라도 자음이 하나 탈락하여 하나만 발음된다. 또한 종성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의 자음만 올 수 있다. 만일 ㉡종성에 이 이외의 자음이 오면 7개 중 하나로 바뀌어 발음된다. 따라서 국어 음절의 유형은 ‘모음’, ‘자음+모음’, ‘모음+자음’, ‘자음+모음+자음’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음절과 음절이 이어져 발음될 때 음절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음운 변동으로 인해 음절 유형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만[만]’과 ‘형[형]’이 이어질 때, 앞 음절 종성과 뒤 음절 초성이 축약되어 ‘[마형]’으로 발음되므로 앞 음절의 음절 유형이 달라진다. 또 ‘한[한]’과 ‘여름[여름]’이 이어질 때, ‘ㄴ’이 첨가되어 ‘[한너름]’으로 발음되므로 두 번째 음절의 음절 유형이 달라진다. 다음으로, 음운 변동이 아니라 ㉣연음에 의해 음절 유형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가령 ‘밥[밥]’과 조사 ‘이[이]’가 이어질 때, 연음에 의해 ‘[바비]’로 발음되므로 각 음절의 음절 유형이 모두 달라지고, ‘흙[흙]’과 조사 ‘은[은]’이 이어지면 ‘[흙근]’으로 발음되므로 두 번째 음절의 음절 유형만 달라진다. 그런데 ‘흙[흙]’은 ‘흙[흙]’과 ‘웃[웃]’이라는 각 음절의 종성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만 이로 인해는 음절 유형이 달라지지 않고 연음에 의해서만 각 음절의 음절 유형이 달라진다.

한편 음절과 음절이 이어져 발음될 때 나타나는 음운 변동 중에는 인접한 두 자음의 공명도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공명도란 발음할 때 공기가 울리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모음이 자음보다 공명도가 높다. 자음 중에서는 울림소리가 안울림소리보다 공명도가 높으며, 울림소리 중에서는 유음이 비음보다 공명도가 높다. 그런데 두 음절이 이어져 발음될 때, 앞 음절 종성의 공명도는 뒤 음절 초성의 공명도와 같거나 뒤 음절 초성의 공명도보다 높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음운의 교체가 일어난다.

1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흡화덕[흐과덕]’은 ㉠이 적용되며, ㉡에 해당한다.
- ② ‘날알[나:달]’은 ㉢이 적용되며, ㉣에 해당한다.
- ③ ‘읏다[읍따]’는 ㉠과 ㉢이 모두 적용되며, ㉡에 해당한다.
- ④ ‘숨이불[숨:니불]’은 ㉠과 ㉢ 중 어떤 것도 적용되지 않으며, ㉡에 해당한다.
- ⑤ ‘훑어[홀터]’는 ㉠과 ㉢ 중 어떤 것도 적용되지 않으며, ㉣에 해당한다.

12. 다음은 [A]를 바탕으로 학생이 메모한 내용의 일부이다. ㉠과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자음의 공명도 차이에 따라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앞 음절 종성의 공명도가 뒤 음절 초성의 공명도보다 낮을 때, ㉠ 앞 음절 종성의 공명도를 높이는 교체가 일어나거나, ㉡ 뒤 음절 초성의 공명도를 낮추는 교체가 일어난다.

- | | | |
|---|--------|---------|
| | ㉠ | ㉡ |
| ① | 삭막[상막] | 공론[공논] |
| ② | 능력[능낙] | 업무[엄무] |
| ③ | 답론[담논] | 종로[중노] |
| ④ | 신라[실라] | 밤물[밤물] |
| ⑤ | 국민[궁민] | 난리[날:리] |

13.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끼리 묶은 것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선생님: 피동은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어떤 동작을 당하거나 영향을 받는 것이고, 사동은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동작을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은 접미사에 의해 실현되기도 하는데, 피동 접미사와 사동 접미사가 같은 형태인 경우 문장에서의 쓰임을 바탕으로 그 접미사가 피동 접미사인지 사동 접미사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학생: 선생님, 그럼 [㉠]는 피동 접미사가 쓰인 경우이고, [㉡]는 사동 접미사가 쓰인 경우이겠군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 ① ㉠: 욕심 많은 사람들은 제 배만 불렀다.
㉡: 나는 아이들에게 돌아가며 노래를 불렀다.
- ② ㉠: 우리 직원들은 다른 부서에 약점을 잡혔다.
㉡: 그는 마지못해 은행에 주택마저 담보로 잡혔다.
- ③ ㉠: 어머니는 집을 나서는 딸의 손에 책을 들렸다.
㉡: 팔에 힘을 주니 무거운 가방이 번쩍 들렸다.
- ④ ㉠: 저녁을 준비하던 형은 나에게 찌개 맛부터 보였다.
㉡: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 그가 다시 예전처럼 보였다.
- ⑤ ㉠: 직원이 일을 잘못 처리해서 회사에 손해만 안겼다.
㉡: 막넛동생은 자기가 들고 있던 짐마저 나에게 안겼다.

14. <보기>는 학습지의 일부이다.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형태소는 자립성 여부에 따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구분되고, 실질적인 의미를 갖느냐 문법적인 의미를 갖느냐에 따라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구분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형태소는 ㉠ 실질 형태소이자 자립 형태소인 것, ㉡ 실질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인 것, ㉢ 형식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학습 활동]
다음 문장의 형태소를 분석해 보자.

비로소 바라던 것을 이루자 형은 기쁨에 젖어 춤을 추었다.

- ① ‘비로소’와 ‘것’은 ㉠에 속한다.
- ② ‘바라던’의 ‘바라-’와 ‘이루자’의 ‘이루-’는 ㉡에 속한다.
- ③ ‘기쁨’과 ‘춤’에는 ㉠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다.
- ④ ‘형은’에는 ㉠, ㉡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다.
- ⑤ ‘젖어’와 ‘추었다’에는 ㉢, ㉣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다.

15.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王왕이 드르시고 즉자히 南남堀窟에 가샤 더 仙仙人신을 보샤 禮禮數數송호시고 니르샤디 썩를 두겨시다 듣고 婚婚姻인을 求求할호노이다 仙仙人신이 솔보디 내 혼 썩를 뒤쇼디 저머 어리오 아히 僻僻터 深深山산에 이셔 샤르미 이리 설우르고 풀웃 넙고 나뭇 여름 먹느니 王왕이 므슈 호려 저주시느니잇고

[현대어 풀이]

왕이 들으시고 즉시 남굴에 가지어 저 선인을 보시어, 예수하시고 이르시되 “딸을 두고 계시다 듣고 혼인을 구합니다.” 선인이 사뢰되 “내가 한 딸을 두고 있되, 어려서 어리석고, 아이 때부터 심산에 있어서 사람의 일이 서투르고, 풀을 입고 나무의 열매를 먹나니, 왕이 무엇을 하려고 따져 물으십니까?”

- ① ‘보샤’를 보니, 현대 국어와 달리 객체를 높이기 위해 선어말 어미 ‘-샤-’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② ‘솔보디’를 보니, 현대 국어와 달리 ‘·’, ‘빙’이 표기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③ ‘어리오’를 보니, ‘어리다’가 현대 국어와 다른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군.
- ④ ‘샤르미’를 보니, 현대 국어의 관형격 조사 ‘의’가 양성 모음 뒤에서 ‘익’의 형태로 쓰였음을 알 수 있군.
- ⑤ ‘넙고’를 보니, 현대 국어와 달리 단어의 첫머리에서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군.

[16 ~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고전적 기술철학은 개별적인 기술 하나하나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포괄적인 기술 일반에 주목하면서 현대 기술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고전적 기술철학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엘월과 마르쿠제가 있다.

엘월은 자율적 기술론의 관점에서 현대 기술의 특징에 주목하여 기술이 사회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가를 보여 주었다. 자율적 기술론은 도구적 기술론과 대비된다. 도구적 기술론에서 기술은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인간이 정한 목적을 ㉠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된다. 이와 달리 엘월은 기술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자율적인 것이 되어 버렸다고 주장한다. 기술은 오직 효율성이라는 기준에 의해서만 움직이므로,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기술 자체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자동적이며 불가역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자율적인 기술 앞에서 인간의 자율성은 존재하지 않게 되며 전통적 의미에서 주체와 객체의 관계였던 인간과 기술의 관계가 역전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엘월은 기술에 대한 인간의 근거 없는 신뢰가 일반화되고 인간이 기술의 지배에 대한 비판력을 상실하게 되어 사회가 인간 소외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였다. 엘월은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자율성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뿐이라고 하였다.

마르쿠제는 일차원적 사회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기술의 발달로 인해 발생한 인간과 사회의 위기 상황을 분석하였다. 일차

원적 사회란 인간의 비판 능력을 ㉡ 제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인간을 억압하여 존속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일차원적 사회에서 기술은 구성원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지배 이데올로기가 된다. 즉, 기술이 산업과 권력의 제도적 주도권을 쥐고 있는 주체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면서 잘못된 현실을 정당화하는 방법이 되었다는 것이다. 마르쿠제에 따르면 산업 혁명 초기에 인간은 기술을 개발하여 고통스러운 노동에서 스스로 해방되었다. 그러나 기술이 고도화되고 산업 사회가 성장하면서 기술은 오히려 개인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었고, 그 결과 개별 주체는 내면의 자유를 박탈당했다. 기술의 창조자였던 인간이 비판적 사유를 하지 못하는 일차원적 인간으로 전락한 것이다. 따라서 그는 기술이 이미 사회를 지배하는 파괴적인 정치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나)

기술 일반에 대해 추상적으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실제 기술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믿은 철학자들은 자신들의 시도를 ‘경험으로의 전환’이라고 불렀다. 이들은 고전적 기술철학자들이 기술이 초래한 문제들에 집착한 채, 기술을 외부에서만 관찰이 가능한 커다란 ㉢ ‘암흑 상자(black box)’로 취급해 왔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개별 기술들의 내용과 발전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토대 위에서 철학적 사유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경험으로의 전환은 기술에 대한 서술적인 접근 방식과 규범적인 접근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서술적 접근 방식은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술을 ㉣ 세밀하게 관찰하여 기술이 가지는 특징들을 상세하게 분석하는 데 치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돈 아이디는 일상에서 생생하게 감지되는 기술 그 자체, 곧 현상적 차원에서 기술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틀에 미치는 기술의 영향을 분석하고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대해 탐구하였다.

그는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체현 관계, 해석 관계, 배경 관계로 설명한다. 먼저 체현 관계란 기술이 인간의 신체적 기능을 확장하는 역할을 하는 관계이다. 안경처럼 기술이 인간 몸의 일부와 같이 기능하는 것인데, 인간은 이러한 기술을 통해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해석 관계는 기술이 해석을 필요로 하는 텍스트를 인간에게 제공하는 관계이다. 전자 현미경으로 미시 입자를 탐구하는 경우, 전자 현미경 속에 보이는 것은 세계에 관한 텍스트인 셈이며, 인간은 이를 해석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배경 관계는 기술이 인간의 삶이 영위되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인데, 보일러와 같이 기술이 인간에게 마치 환경의 일부처럼 여겨지는 관계이다.

규범적 접근 방식은 기술이 야기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규범적 접근 방식에서는 고전적 기술철학자들이 기술 사회의 문제와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핀버그는 사회구성주의자들의 이론을 토대로 기술의 민주화를 주장하였다. 사회구성주의자들에 따르면 기술의 발달은 효율성과 같은 일정한 법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특정 기술과 관련된 사회 집단의 상호 작용에 의해 여러 가지 변화 가능한 방향 중 하나가 무의식적이고 우연적으로 선택되어 기술의 발달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았다. 핀버그는 이러한 우연성이 기술의 변화에 인간

이 개입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며 인간이 기술의 발달 방향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사회구성주의자들이 개별 기술의 발달 방식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여 기술의 발달 과정에 사회적 합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데 만족했다면, 핀버그는 기술코드를 민주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술 사회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기술코드란 기술이 정의되고 활용되는 방식으로, 디자인이나 그것이 수행하는 역할, 기술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는 기술에 대한 사회적 선택의 과정을 의식적 차원에서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고, 보다 광범위한 집단이 선택권을 나누어 가지면서 기술 발달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6.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는 기술철학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있다.
- ② (가)와 달리 (나)는 특정 기술철학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소개한 후 절충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③ (나)와 달리 (가)는 특정 기술철학자의 견해가 지닌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기술을 바라보는 기술철학자의 논쟁을 소개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기술철학이 주목하는 측면을 제시하고 대표적인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17. (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마르쿠제는 정치적 변화에 의해 기술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 ② 도구적 기술론에서는 인간의 의도와 목적이 기술의 사용 방향을 결정한다.
- ③ 엘월의 입장에서는 자율적인 기술 앞에서 인간의 자율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④ 일차원적 사회에서는 개별 주체가 억압에서 벗어나 내면적 자유를 보장받는다.
- ⑤ 엘월과 마르쿠제 모두 기술에 대한 인간의 비판적 사고가 상실되는 것을 우려하였다.

18. (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자전거가 처음 개발되었을 때, 사용자와 기술자들이 자전거의 용도를 각기 다르게 파악하여 다양한 디자인의 자전거가 만들어졌다. 앞바퀴가 큰 자전거는, 자전거를 스포츠용품으로 파악한 사람들이 선호했다. 앞뒤 바퀴의 크기가 같은 자전거는, 자전거를 장보기용이나 교통수단으로 본 사람들이 원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전거를 장보기용이나 교통수단으로 더 선호하게 되었다. 결국 자전거의 디자인은 앞뒤 바퀴가 같은 크기로 고정되는 방식으로 발달하였다.

- ① 돈 아이디는 자전거가 사용자의 신체적 기능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분석하겠군.
- ② 돈 아이디는 자전거 바퀴의 크기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해석할 수 있는 텍스트라고 보겠군.
- ③ 사회구성주의자들은 앞뒤 바퀴의 크기가 같은 자전거로 디자인이 고정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겠군.
- ④ 핀버그는 자전거 앞뒤 바퀴의 크기, 자전거의 용도를 기술코드로 보겠군.
- ⑤ 핀버그는 자전거의 디자인을 선택하는 과정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어야 한다고 보겠군.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ㄱ. 기술을 만드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인간 본성의 산물인 기술이 인간 의식 내부에까지 변화를 일으킨다.
 ㄴ. 기술의 의미는 자연과 맞서는 자유이다. 즉, 인간의 일상생활을 용이하게 하고 인간을 빈곤, 위협 등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기술의 의미이다. 기술은 동물처럼 자연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킨다.
 ㄷ. 현대 기술 사회는 기술 통제를 스스로 포기한 ‘기술 표류’의 상태이다. 그러므로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로 기술 발전의 과정 자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기술은 만든 이의 의도와 무관하게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정치적 영향력을 갖기 때문이다.

- ① ㄱ과 돈 아이디 모두, 기술이 인간의 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 ② ㄴ과 마르쿠제 모두, 기술이 인간의 편의를 위해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 ③ ㄴ은 엘월과 달리, 기술이 초래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 ④ ㄷ과 핀버그 모두, 기술이 야기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 ⑤ ㄷ은 엘월과 달리, 인간이 기술의 발전을 정치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본다.

20.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술에 대해 관찰하여 실제 기술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한다.
- ② 기술 간의 상호 작용은 무시한 채 개별 기술의 분석에만 치중한다.
- ③ 기술을 막연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실체를 가진 것으로 인식한다.
- ④ 기술 자체에 대해서 모르는 채 기술로 인해 생기는 상황에만 집착한다.
- ⑤ 기술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 연연하여 기술에 대해 분석하기를 꺼린다.

21. 문맥상 ㉠ ~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이루기
- ② ㉡: 없앴으므로
- ③ ㉢: 빠르게
- ④ ㉣: 찾는
- ⑤ ㉤: 힘써

[22 ~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행정 기관에 사전에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행정 기관으로부터 받으면 그 답변을 믿고 건축을 진행할 것이다. 이처럼 행정 기관의 어떤 조치가 실행될 것이라는 데 대한 국민의 믿음을 신뢰라고 하며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행정 기관의 말이나 행위를 행정 기관의 선행조치라 한다. 그런데 행정 기관의 선행조치가 행해진 이후 선행조치에 법적 하자가 발견되면, 행정 기관은 선행조치에 반하는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되고, 이 경우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 기관의 선행조치에 법적 하자가 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는 보호받아야 함을 행정법상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이를 신뢰보호원칙이라 한다. 행정 기관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을 내릴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한 것이며 취소 또는 무효의 대상이 된다.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행정 기관의 선행조치로서 **공적 견해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적 견해 표명은 행정 기관이 행정권 행사에 대한 의사를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공적 견해 표명은 '시설의 건축 허가', '사업 계획서에 대한 적정 통보'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법령 해석과 같은 추상적인 내용의 질의에 행정 기관이 원론적 차원에서 답변해 준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 기관이 명시적으로 의사를 드러내는 것뿐 아니라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으로 의사를 드러내는 것도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로 보아 공적 견해 표명이 될 수 있다. 가령 행정 기관이 어떤 위법한 상태에 대해 취소권, 영업 정지권 등의 행정적 권한을 행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국민은 행정 기관이 이러한 권한을 이후에도 계속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될 것이다. 이 경우 행정 기관이 장기간 행정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행정 기관의 의사 표명 행위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요건은 행정 기관의 선행조치에 대한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행정 기관의 선행조치가 법적 하자를 갖게 된 것에 대해 국민에게 귀책 사유, 즉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가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행정 기관이

특정 사업에 대해 허가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표명했으나 그 허가 조치에 법적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그 이유가 허가를 신청한 국민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이라면 그 국민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요건은 행정 기관의 선행조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국민이 행한 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며, 행정 기관이 선행조치에 반하는 다른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한 경우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업을 허가할 수 있다는 행정 기관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고, 이 선행조치를 신뢰한 개인이 물품을 구입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영업 준비를 진행하였으나 이후 행정 기관이 영업을 허가하지 않아 개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요건에 따라 ㉠ 국민이 행정 기관의 선행조치가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선행조치와 관련된 사항이 사후에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을 행정 기관이 국민에게 미리 알린 경우에는 신뢰 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신뢰보호원칙은 이상과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못할 수도 있다. 국민의 신뢰가 침해됨으로써 국민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공익 및 제삼자의 정당한 이익과 비교하여 공익 및 제삼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 신뢰보호원칙은 행정 기관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 기관의 선행조치 이후 사실 관계나 법적 상황이 변경된 경우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신뢰보호원칙은 법적 하자가 있는 행정 기관의 선행조치도 적법한 것처럼 효력을 유지하게 한다는 점에서, 행정 작용이 법률에 적합해야 한다는 행정상 법치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정신에 부합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신뢰보호원칙이 행정상 법치주의에도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2. 밑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신뢰보호원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② 신뢰보호원칙이 성립된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 ③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 ④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 ⑤ 신뢰보호원칙이 행정상 법치주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23. **공적 견해 표명**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행정권 행사에 대한 행정 기관의 의사를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 ② 행정 기관의 명시적 의사 표명뿐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 표명도 해당될 수 있다.
- ③ 구체적 사안과 관계없이 법령의 해석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준 것도 포함될 수 있다.
- ④ 국민이 신뢰를 갖게 되는 대상으로서 행정 기관의 말이나 행위를 통해 드러날 수 있다.
- ⑤ 국민의 신뢰가 형성된 공적 견해이더라도 법적 상황이 변경된 후에는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할 수 있다.

24.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행정 기관이 선행조치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 ② 행정 기관의 선행조치가 법적 하자를 갖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 ③ 행정 기관의 선행조치가 사실 관계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④ 행정 기관의 선행조치가 국민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행해진 것이기 때문이다.
- ⑤ 행정 기관의 선행조치에 대한 신뢰가 원인이 되어 국민의 행위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5.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가) A는 도시 계획 구역 안에 있는 농지에 복지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토지 개발 행위 허가가 가능한지를 ○○시에 문의했다. A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관련 법규상 토지 개발 행위가 허용된다는 회신을 받고 건축 준비를 했으나 ○○시는 해당 농지를 보전해야 할 공익적 필요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A가 신청한 토지 개발 행위를 불허가하였다. 법원은 ○○시의 토지 개발 행위 불허가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다.

(나) B는 특정 대기 유해 물질 배출 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시에 공장을 설립했다. 설립 당시 B는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은 배출되지 않고 먼지와 배기가스만 배출될 것이라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시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아 배출 시설 설치 신고를 마친 후 공장을 운영했다. 그러나 그 이후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시는 시설 폐쇄 명령을 하였다. 법원은 B가 허위이거나 부실한 계획서를 제출해 착오를 유발하였으므로 △△시의 시설 폐쇄 명령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 ① (가)에서 A가 신청한 토지 개발 행위에 대한 행정 기관의 불허가 처분은 법원에 의해 위법하다고 판결받은 것이겠군.
- ② (가)에서 A는 토지 개발 행위가 허용될 것이라는 담당 공무원의 회신을 행정 기관의 선행조치로 신뢰했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가)에서 법원은 행정 기관이 농지를 보전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A의 권익을 침해하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만큼 크지는 않다고 판단한 것이겠군.
- ④ (나)에서 행정 기관이 B의 공장 설립을 승인한 것은 위법 상태에 대해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의사를 표명한 것이겠군.
- ⑤ (나)에서 법원은 공장 설립을 허가한 행정 기관의 선행조치가 법적 하자를 갖게 된 것에 대한 귀책 사유가 B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이겠군.

[26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로켓의 안정적인 비행을 위해 연소 불안정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연소 불안정은 연소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으로, 로켓에서는 연소실의 압력 진동이 비정상적으로 증폭되는 연소 불안정이 나타날 수 있다. 액체 추진제 로켓의 연소 과정을 바탕으로 연소 불안정에 대해 알아보자.

액체 추진제 로켓은 산화제와 액체 연료를 추진제로 사용한다. 액체 추진제 로켓의 엔진은 일반적으로 산화제 탱크, 연료 탱크, 분사기, 연소실, 노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로켓 엔진에 시동이 걸리면 산화제 탱크와 연료 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추진제가 이동하여 분사기에 의해 연소실 내부로 분사된다. 연소실 내에서 추진제가 연소될 때, 액체였던 추진제가 연소 가스가 되면서 연소실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며, 열, 소리 등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러한 연소 과정은 추진제가 분사기에 의해 연속적으로 분사되면서 지속된다. 이때 연소실 내에는 소리의 진동, 열이 주기적으로 방출되며 생기는 열 방출 진동이 존재한다. 연소실 내의 압력 역시 주기적으로 변화하며 진동한다. 그리고 연소 가스는 노즐을 통과하여 로켓 바깥으로 배출되고, 그 반발력으로 로켓은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연소 과정에서 연소실과 추진제 공급 시스템 간의 상호 작용이나, 연소실 내 열 방출 진동과 소리 진동 간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연소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연소실 압력 진동으로 추진제 공급량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므로써 연소실의 압력 진동이 증폭되는 것이다. 이때 연소실 압력 진동은 일반적으로 10 ~ 200Hz 사이의 주파수를 갖는다. 이러한 연소 불안정은 추진력의 크기를 변화시키고 로켓의 구조물에 손상을 줄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연소실 내 열 방출의 진동이 갖는 주파수와 소리의 진동이 갖는 주파수가 일치하여 연소실의 압력 진동이 비정상적으로 증폭되는 것으로 이를 열음향 연소 불안정이라 한다. 연소실 내부에서 연소 반응으로 발생하는 열 방출 진동과 소리의 진동은 각각의 주파수를 갖는다. 여기서 소리는 연소실의 고유 주파수로 진동하는데, 이는 소리의 주파수가 크기나 형상과 같은 연소실의 공간적 특성과 연소 가스의 온도 및 비열에 따라 결정된다는 의미이다. 각각의 주파수가 일치하면 압력 진동이 급격하게 증폭될 수 있다. 이때 연소실 압력 진동의 주파수는 일반적으로 1,000 ~ 2,000Hz 사이에 있으며 연소실의 고유 주파수와 유사한 값을 갖는다. 열음향 연소 불안정은 연소실 파손이나 폭발을 유발할 수 있다.

연소 불안정으로 인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로켓 개발 과정에서는 실제 연소실과 유사한 조건으로 연소 시험을 수행하여 연소 불안정의 발생 여부나 발생 원인을 파악한다. 일반적으로 연소실 압력이 정상 압력을 기준으로 $\pm 5\%$ 범위 내에서 진동할 경우 연소가 안정하다고 판별하고, 그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연소 불안정이 ㉠ 일어난 것으로 판별한다. 연소 불안정이 일어난 것으로 판별되었을 경우, 압력 진동이 증폭되었을 때의 주파수인 주요 진동 주파수를 측정하고 이를 연소실의 고유 주파수와 비교하여 연소 불안정의 원인을 판단한다.

연소 불안정 발생 원인이 연소실과 추진제 공급 시스템 간의 상호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공급 시스템의 압력 감쇠 장치를 설치하는 방법 등을 이용한다. 또한 열음향 연소 불안정이라고 판단되면 이를 제어하기 위해 연소실에 ㉡ 배플이나 ㉢ 음향공을 장착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다. 배플과 음향공은 모

두 연소실 내의 소리 진동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배플은 연소실과 연결되는 분사기의 면을 여러 구획으로 나누는 장치로서, 연소실의 공간적 특성을 바꾼다. 이를 통해 기존의 연소실 고유 주파수를 변화시켜 열 방출 진동과 소리 진동 간의 상호 작용을 억제할 수 있다. 음향공은 특정 주파수의 소리 진동을 흡수하는 장치로 음향공을 연소실에 연결하면 연소실 내부의 소리가 음향공 안에서 진동하게 되어 소리 에너지가 분산된다. 음향공은 연소실의 특정 주파수를 고려하여 설계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감쇠할 수 있는 주파수의 범위가 좁다.

26.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연소실 내부의 소리 진동은 연소 가스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
- ② 액체 추진제 로켓의 추진제로는 산화제와 액체 연료가 쓰인다.
- ③ 로켓이 안정적으로 비행하려면 연소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
- ④ 로켓의 구조물은 연소 불안정으로 인해 손상을 입는 경우도 있다.
- ⑤ 추진제 공급 시스템의 압력 감쇠 장치는 연소 불안정을 일으킨다.

27.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다음은 서로 다른 연소실을 대상으로 한 가상의 연소 시험 결과이다. 최대 압력, 최소 압력, 주요 진동 주파수는 연소 반응이 일어날 때의 측정값이며, 연소실 A ~ C 모두 연소실 고유 주파수는 1,200Hz이다. (단, 표에 제시된 내용 이외의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연소실	정상 압력 (psia*)	최대 압력 (psia)	최소 압력 (psia)	주요 진동 주파수 (Hz)
A	1,200	1,220	1,180	1,200
B	1,400	1,500	1,300	150
C	1,500	1,650	1,350	1,200

* psia: 압력의 단위.

- ① A는 B, C와 달리 연소실 내부 압력이 적정 범주 이내로 진동했군.
- ② B는 A와 달리 연소실 압력과 추진제 공급량 간의 상호 작용으로 문제가 발생했겠군.
- ③ B는 C와 달리 소리가 연소실의 고유 주파수로 진동했음을 추론할 수 있겠군.
- ④ C는 A와 달리 연소실 파손이나 폭발을 유발할 수 있겠군.
- ⑤ C는 B와 달리 소리가 지닌 주파수와 열 방출 주파수가 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났겠군.

28.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연소실 고유 주파수를 변화시킨다.
- ② ㉠은 연소실 내부의 공간적 특성을 변화시킨다.
- ③ ㉡는 감소시킬 수 있는 주파수의 범위가 좁다.
- ④ ㉡는 소리 에너지를 연소실 내부로 집중시킨다.
- ⑤ ㉠과 ㉡는 모두 연소실 내의 소리 진동을 변화시킨다.

29. 액체 추진제 로켓의 연소 과정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분사기는 산화제와 액체 연료를 연소실 바깥으로 분사한다.
- ② 연소 가스가 노즐을 통해 배출되어 로켓은 추진력을 얻는다.
- ③ 연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추진제가 추가로 분사될 수 없다.
- ④ 연료 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추진제는 산화제 탱크로 이동한다.
- ⑤ 추진제가 연소 반응을 거치면 연소 가스가 발생해 연소실의 압력은 낮아진다.

30.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봄이 되면 황사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
- ②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을 산책했다.
- ③ 기쁨으로 환호성이 일어나자 모두 그쪽을 쳐다보았다.
- ④ 모두 부지런히 일하여 가난하던 살림살이가 일어났다.
- ⑤ 청렴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부패 추방 운동이 일어났다.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갈밭 속을 간다.
젊은 시인과 함께
가노라면
나는 혼자였다.
누구나
갈밭 속에서는 일쭉
동행을 잃기 마련이었다.
성형(成兄)
성형(成兄)
㉠ 아무리 그를 불러도
나의 음성은
내면으로 되돌아오고,
이미 나는
갈대 안에 있었다.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닌데
갈밭은
어석어석 흔들린다.
갈잎에는 갈잎의 바람
백발에는 백발의 바람.
젊은 시인은
저편 강기슭에서 나를 부른다.
㉡ 하지만 이미
나는 응답할 수 없다.
나의 음성은
내면으로 되돌아오고
어쩔 수 없이 나도
흔들리고 있었다.

- 박목월, 「하단에서」 -

(나)
참 늙어 보인다
하늘 길을 가면서도 무슨 생각 그리 많았던지
함부로 곧게 뻗어 올린 가지 하나 없다
㉢ 멍칫멍칫 구불구불
태양에 대한 치열한 사유에 온몸이 부르터
늙수그레하나 열매는 ㉣ 애초부터 단단하다
뚫다
꽃생각을 남에게 건네지 않으려는 마음 다짐
독하게, 꽃을, 땡감을, 딸구며
지나는 바람에 허튼 말 내지 않고
아니다 싶은 가지는 툭 분질러 버린다
단호한 결단으로 가지를 다스려
영혼이 가벼운 ㉤ 새들마저 동지를 틀지 못하고
앉아 깃을 쪼며 미련 떨치는 법을 배운다
보라
가을 머리에 인 밝은 열매들
늙은 몸뚱이로 어찌 그리 예쁜 열매를 매다는지
그뿐
눈바람 치면 다시 알몸으로
죽어 버린 듯 묵묵부답 동안거에 드는

- 함민복, 「감나무」 -

31. (가),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직유법을 사용하여 대상을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 ② (가)는 수미상관의 방식을 통해 구조적 안정감을 얻고 있다.
- ③ (나)는 감탄사를 활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명령형 어조를 사용하여 시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동일한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32.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간절함에서 비롯된 화자의 행동을 부각한다.
- ② ㉡: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없는 화자의 처지를 부각한다.
- ③ ㉢: 곧게 뻗은 것 하나 없이 이리저리 구부러진 채 자란 가지의 모습을 부각한다.
- ④ ㉣: 걸모습과 다르게 감나무가 굳은 열매를 가지고 있다는 특성을 부각한다.
- ⑤ ㉤: 방황하는 존재에게 자신을 내어 주는 감나무의 특성을 부각한다.

33.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시에서 자연은 인간의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는 데 활용되기도 한다. (가)에서 화자는 자연물의 움직임을 통해 불안한 내면을 구체화하고, 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 느끼는 고독감을 인간의 근원적 정서로 보편화하면서 수용하고 있다. (나)에서 화자는 순환적 질서를 따르는 존재로 형상화된 자연물을 통해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상을 추구하면서 자신을 엄격히 다스리는 삶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① (가)에서는 ‘나는 혼자였다’며 소통이 단절된 상황을 인식한 화자가 ‘누구나’ ‘동행을 잃기 마련’이라고 한 것에서 자신의 상황을 보편화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나)에서는 ‘가을’에 ‘열매를 매’단 후 ‘눈바람 치면 다시 알몸으로’ ‘동안거에’ 든다는 것에서 화자가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의 순환적 속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나)에서는 ‘하늘 길을 가면서’ ‘태양에 대한 치열한 사유에 온몸이 부르’터졌다는 것에서 화자가 자연물의 모습을 통해 이상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가)에서는 ‘갈대 안’에 있으면서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닌데’ ‘갈밭’이 ‘흔들린다’고 느끼는 것에서 화자가 자연물의 움직임을 통해 불안한 내면을 드러내고 있음을, (나)에서는 ‘무슨 생각’이 ‘많았던지’ ‘참 늙어 보인다’고 한 것에서 화자가 자연물을 통해 인간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가)에서는 ‘음성’이 ‘내면으로 되돌아오고’ ‘어쩔 수 없이’ ‘흔들’린다는 것에서 화자가 고독감을 인간의 근원적 정서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나)에서는 ‘땡감을, 딸구’게 하는 시련을 겪지 않기 위해 ‘아니다 싶은 가지’를 ‘분질러 버린다’는 것에서 화자가 자연물을 통해 자신을 엄격히 다스리는 삶의 태도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34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편, 명훈은 여전히 걸핏하면 국장에게 불리어 갔다. 젊은 국장은 그럴싸한 트집을 잡아내선 번번이 자기가 더 먼저 흥분했다. 명훈을 잘 모르는 동료들, 편집국 사람들은 ㉠ 횃수가 잣아짐에 따라 명훈에게 무슨 결함이 있기는 있는 게라고 여기게끔 되었다. 그러나 나는 국장이 그럼으로써 오히려 명훈에게 진짜 잘못이 없음을 그 스스로 반증해 보인다고 생각했다.

명훈은 자기 담당의 모든 것에 대해 한결같이 열정을 쏟았다. 그럼에도 '고전 산책'에서와 같이 필자 쪽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고가 생기는 수가 더러 있었다. 그럴 때조차 그는 그 사고가 지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능력껏 사전에 미봉책을 다 마련해 놓았다. 그 이상은 누구의 경우에도 능력 밖일 것이다.

기다렸던 듯이 국장은 ㉡ 그런 때를 꼭 집어냈다. 그에겐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 결과만이 중요했다. 추궁하는 입장에선 그보다 더 유리한 고지는 없을 것이다. 그는 스스로 완벽주의자로 자처했다. 명훈은 그의 앞에서 변명을 늘어놓거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린 일이 한 번도 없는 듯했다. 국장은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도 수치심을 황급히 비굴한 웃음으로 바꾸어, 변명하고 남을 탓하게 만들고 싶은지도 모른다.

그는 테이블 너머 멀뚱히 서 있는 명훈의 너그러우면서도 견고한 침묵에 부딪칠 때마다 자신의 노여움이 무언지 뭣뭣지 못함을 느끼고, 그러한 자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그가 증오스러웠는지도 모른다.

명훈은 우리가 적응함으로써 회피해 버린 그 무엇과 혼자서 맞서고 있었다. 우리의 뒀까지.

[중략 부분 줄거리] 어느 날 명훈은 사표를 내고 휘파람을 불며 사라지고, 남은 사람들은 명훈의 빈자리를 느끼게 된다.

나는 명훈의 자리로 건너갔다. 의자에 앉으려다 하마터면 쓰러질 뻔했다. 나사가 빠졌는지 앉자마자 의자가 기우뚱 쓰러졌다. 눈여겨보지 않아서였을까? 아니면 명훈이 일체 내색하지 않아서였을까? ㉢ 우리는 아무도 그의 의자가 고장 나 있는 사실을 몰랐다.

그의 책꽂이는 잘 정돈되어 있었고, 서랍 안도 깨끗이 치워져 있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을 뿐, 그는 벌써 자기가 다시는 이 책상 앞으로 되돌아오지 않으리란 것을 나름대로 확실히 알려 놓았는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가 지금도 어디선가 꺼칠한 얼굴에 눈이 붉게 충혈되면서 밤을 새우고 있을 것만 같이 생각되었다. 우리가 펑크 낸 원고를 대신 메워 주기 위해 혼자서 밤을 새웠듯이, 그는 이제 또 다른 장소에서 혼자 외롭게 고투하고 있을 것만 같았다. 인간에게 불을 훑쳐다 준 죄로 어딘가에서 독수리에게 심장을 파 먹히고 있다는 프로메테우스와 같이, 그는 사람들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놓고 혼자서 심장을 물어뜯기고 있는 게 아닐까?

㉣ 그때 이경숙이 내 옆구리를 꼭 짚었다. 라운지를 가리키는 듯 그녀는 눈을 찡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새의 부리처럼 뾰족한 북한산이 손에 잡힐 듯 다가와 있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부장이 찾아갈 것 같더군.”

앉자마자 내가 대뜸 말했다.

“그렇다고 질질 끌려올 사람예요? 어렵도 없어요.”

그녀는 완강하게 고개를 젓기까지 했다. 거기엔 그러기를 바라

는 그녀의 뜻도 실리어 있는 듯했다. 나는 비죽이 웃었다. 나 역시 그런 바람이 없지 않았던 것이다.

“집에 없을지도 모르지.”

“그래요, 벌써 어디론가 떠났을지도 몰라요.”

그녀와 나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높은 산봉우리 쪽으로 시선을 보냈다. 그렇게 해서 그를 뒤쫓으려는 세상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그를 멀리 밀어내려는 듯이.

발목에 반짝이는 띠를 채워 준 자신의 새가 가능하면 이 세상 구석구석까지 날아다니기를 바라는 조류학자처럼, 먼 하늘 끝을 바라보는 나는 사뭇 가슴이 설레었다.

뚫단배 같은 하얀 구름 한 조각이 북한산 위로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나의 새에게 펠리컨이란 이름을 붙여 주기로 했다.

“왜 웃어요?”

“좋아서.”

“뭐가요?”

“방금 좋은 생각을 했거든. 나는 앞으로 그를 펠리컨이라 부를 거야. 펠리컨 새.”

“펠리컨호는 어때요? 폭풍 속을 항해하는 배. 삼각돛도 용골도 제 힘에 겨운 역사(力士) 모양 죽자고 파도를 향하여 달려드는…….”

“말은 어떨까? 달릴 때는 스스로 동맥을 깨물어 호흡을 돕는다는 한혈마.”

“아, 좋아요, 좋아요. 펠리컨! 펠리컨! 펠리컨! 좋은 시 같아요.”

이경숙은 짐짓 좋은 시를 외듯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여기가 이렇게 좋은 텐 줄 미처 몰랐군.”

“그래요…….”

이경숙은 갑자기 숨을 죽이고 조용해졌다. 어쩌면 그녀는 명훈에 대한 그리움을 먹고 축축하게 살찌고 있는지도 몰랐다.

명훈이 떠남으로써 문화부 속에 패었던 자국은 그다지 오래가지 않았다. 그의 의자는 빈 채로 남겨져 있었으나, 그것은 비어 있기보다 손님이 올 때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내돌리어져, ㉤ 어느덧 주인 없는 의자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머잖아 수습을 끝낸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가슴이 답답할 때마다 나는 동료들의 어깨 너머로 은밀하게 이경숙을 찾았다. 그리고 눈을 찡긐했다. 라운지에서 만난 우리는 한 잔의 커피를 앞에 두고 말없이 창밖을 내다보곤 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그 침묵 속에 그가 가득 괴어들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순간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괜찮을까요? 비바람이 심한데…….”

그러면 내가 대답했다.

“염려 마, 펠리컨 새는 자기가 자기 심장을 잘라 그 피로써 버티는 한이 있더라도 끝내 그곳에 이를 거야.”

- 서영은, 「삼각돛」 -

34.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방언의 활용을 통해 토속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시대적 배경에 대한 서술을 통해 갈등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서술자가 교체되면서 인물 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다른 인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현재와 과거의 사건을 빈번하게 교차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

35. 서사의 흐름을 고려할 때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편집국 사람들이 명훈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원인이 드러나 있다.
- ② ㉡: 국장이 결과를 빌미로 명훈을 추궁하는 상황이 드러나 있다.
- ③ ㉢: 명훈의 의자가 고장난 것을 몰랐던 '우리'의 상황이 드러나 있다.
- ④ ㉣: 이경숙이 '나'의 행동을 자제시키려 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⑤ ㉤: 문화부 사람들이 명훈의 부채를 익숙하게 여기는 상황이 드러나 있다.

36. [라운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들이 명훈과의 재회를 확신하는 공간이다.
- ② 인물들이 명훈을 매개로 동질감을 느끼는 공간이다.
- ③ 인물들이 명훈이 숨기고 있던 비밀을 밝혀내는 공간이다.
- ④ 인물들이 명훈과 자신들의 권위를 비교하고 있는 공간이다.
- ⑤ 인물들이 명훈과 다른 자신들의 처지에 만족감을 느끼는 공간이다.

37.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억압적인 상황에 처한 인간은 현실과 타협함으로써 주체성이 결여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상황에 굴하지 않는 결연한 태도를 보이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 작품은 직장 내 부조리한 상황에 처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실천적 대응 방식과 인간적 실존 회복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① '명훈'이 '자기 담당'의 일에 '능력껏' '미봉책'을 마련해 두었던 것은 굴복을 강요하는 현실과 타협한 모습이겠군.
- ② '우리'가 국장 앞에서 '변명'하고 '남을 탓'하며 상황을 모면했다는 것에서 주체성을 상실한 인간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③ '나'가 떠나버린 명훈을 떠올리며 '가슴' '설레'하는 것에서 억압적인 상황에 처한 인물의 실존 회복에 대한 욕망을 엿볼 수 있군.
- ④ '명훈'이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자리를 정리하고 떠난 것은 부조리한 상황에 실천적으로 대응하는 인물의 모습이겠군.
- ⑤ '나'가 상상하는, '비바람' 속에서도 '끝내 그곳에 이를' '펠리컨 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려는 결연한 의지를 상징하는 것이겠군.

[38 ~ 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연회각 잠깐 쉬어 순력 길 바빠 나서
 해방(海方)도 둘러보며 ㉠ 풍속도 살펴보니
 불쌍하도다 우리 백성 무슨 일로 고달파서
 의식(衣食)이 군색하니 흥미가 있을쏜가
 밭을 겨우 읍길 만한 박전(薄田)을 경작하니
 자른 호미 작은 보습 신고(辛苦)히 매고 가꾸어
 오뉴월 진력(盡力)하여 가을 추수를 바라더니
 조물주 시기 심하고 천시(天時)도 그릇되어
 악풍과 심한 폭우 해해마다 막심하니
 밭이랑을 돌아보면 병마(兵馬)로 짓밟은 듯
 곡식들을 둘러보면 쇠채적으로 마구 내리친 듯
 남은 이삭 주워 내니 빈 껍질뿐이로다
 무엇으로 빛을 갠고 어디에서 꾸어 살아날꼬
 ㉡ 거리거리 모든 기민* 가마 잡고 이른 말이
 서럽고 서러운 우리 목숨 나라에 달렸으니
 유민도* 읍겨다가 임금 계신 데 아뢰고자
 가죽옷 풀 전립이 이 무슨 의관이며
 모밀밥 상실죽이 그 무슨 음식일꼬
 해마다 국은(國恩) 입어 나포이전* 허비하니
 ㉢ 곡식 청함도 낮이 없고 생계도 아득하니
 목자 일족 포작 구실* 이에서 더 서러우며
 배를 부리며 무역하는 무리 그 아니 난감한가
 창명이 한격하고 방금이 엄절하니*
 살 곳에 못 가기는 흘간산(紇干山) 언 새 같도다
 슬프다 너의 간고(艱苦) 내 어이 모르리오
 힘대로 구제키는 관장(官長)에게 달려 있으나
 견디어 지내기는 네 마음에 달렸으니
 그럴수록 경계하고 두려워하여 일상의 심성 보전하여
 천은(天恩)을 잊지 말고 부자형제 상애(相愛)하면
 옥황이 굽어 보셔 복록을 주시나니
 곤궁함을 한(恨)치 말고 네 도리 진심하면
 그 중의 영화(榮華) 있어 빈천을 벗어나니
 옛 시절 돌아보면 그 아니 알 일인가

(중략)

망경루 높은 난간 의지하여 멀리 보니
 바다 빛 아득한데 장안(長安)이 멀리 있도다
 옥루궁궐 아득히 먼 곳 우리 임금 추우신가
 외로운 신하 숨은 근심 도처에 맺혀 있으니
 ㉣ 어느 때 순풍 만나 험한 바다를 쉬이 건너
 이곳에 물정 민생을 세세히 아뢰고자

- 정언유, 「탐라별곡(耽羅別曲)」 -

* 기민: 굶주린 백성.
 * 유민도: 떠도는 백성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
 * 나포이전: 제주도에 흉년이 들었을 때 전라도에서 구호미를 실어 오는 것.
 * 목자 일족 포작 구실: 목장일 하는 가족 물질하는 해녀.
 * 창명이 한격하고 방금이 엄절하니: 넓은 바다가 경계로 막히고 나라에서 금하는 일이 엄격하니.

(나)

내가 평안도 관찰사로 있을 때 일찍이 행부*가 강계부에 이르렀는데, 강계부의 기녀가 찬안*을 들어 올렸다. 찬안 가운데 이

큰바 수관*을 세웠는데, 기교를 한껏 발휘하여 연꽃잎과 꽃 속에 어린아이의 형상을 안치하였는데, 그 광채가 자리를 비추었다. 부백(府伯)이 마침 옆에 있기에 내가 우연히 묻기를 “강계부는 궁색한 지역인데, 누가 이런 기교를 익혔습니까?” 하자, 부백이 말하기를 “칭지기 중에 이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있는데 마침 그가 서울에서 왔으므로 그로 하여금 제작하게 했을 뿐입니다.” 하였다. 찬안을 물릴 적에 내가 기녀에게 말하기를 “수놓은 연꽃은 일단 자리에 놓아두거라.” 하였다. 나는 본래 이런 물건을 좋아하지 않는 성품이지만 대개 노력을 많이 들인 것이 상을 치우는 사이에 삼시간에 함부로 찢어지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이었다. 이로부터 압록강에 접한 주부(州府)를 모두 다섯 번 다녔는데, 찬안을 올릴 적에 비록 수관은 없을지라도 비단을 잘라 꽃을 만들었으며 그 붉은 꽃과 파란 잎이 차린 음식에 어리비치고야 말았으니, 나는 마음속으로 관서의 ㉞ 풍속이 천박함을 비웃었다.

만부에 다다랐을 적에 의주 부윤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말하기를 “본부에는 조화를 만드는 장인이 없어서 찬안의 꽃을 뜻에 맞출 수 없으니, 부끄럽습니다.” 하기에, 내가 그의 말이 마땅하지 않음을 괴상하게 여겨 답하기를 “㉞ 찬안에 꽃이 없어도 괜찮은데, 어찌 그리 말씀이 정성스럽습니까.” 하니, 부윤이 말하기를 “관찰사께서 강계부에 들어가셨을 적에 수놓은 연꽃 때문에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열읍의 아전 중에 관찰사의 동정을 탐문하는 자들이 모두 신속히 보고하기를 ‘관찰사께서 꽃을 매우 사랑하시니, 만약 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에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런 까닭에 ㉞ 열읍이 모두 겹을 먹고 꽃으로 서로 이기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본부는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하는 것이기에, 이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였다. 나는 이에 강계에서 있었던 한 가지 동정이 갑자기 사람들에게 간파되어, 가는 곳마다 폐단을 끼쳤는데도 그것이 나로부터 나와서 반대로 관서의 풍속이 천박하게 된 것임을 알지 못했음을 비로소 알았다. 드디어 이것을 의주 부윤에게 말하고 한 차례 웃고 헤어졌다.

오호라, 관찰사는 한 도의 백(伯)*에 지나지 않는데, 열읍이 반드시 그 기호를 엿보아 맞추려 하며,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에 목숨이 달렸다고 여긴다. 이로부터 생각해 보면, 임금의 존귀함은 하늘과 같고, 역조 백성의 목숨이 누구인들 임금 한 사람에게 달려 있지 않겠는가. 임금의 기호는 그 단서가 한 가지가 아니고 좌우에서 엿보는 자들은 그 수가 몇 천 명인지 모른다. 임금의 기호가 부정한 데서 나오는 일이 한 번만 있어도, 임금의 처소 가까이에서 모시는 자들이 아침저녁으로 엿보다가 은밀하게 간파하고 말마다 아첨하며 일마다 좇아서 임금으로 하여금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손에서 놓지 못하게 한다. 그런 뒤에 어진 이를 미워하고 유능한 자를 질시하며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해치는 손을 남몰래 늘려서, 나라가 그에 따라 멸망한 것이 먼 옛날부터 도도하게 이어졌으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채제공, 「안화설(案花說)」 -

* 행부: 관찰사가 관할 구역을 순시하는 행사.
* 찬안: 잘 차린 음식상.
* 수관: 수를 놓아 만든 꽃잎.
* 백: 한 지역의 통치를 관할하는 지방관을 가리키는 말.

38.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언어유희를 통해 분위기를 희화화하고 있다.
- ③ 연쇄적 표현을 통해 생동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불가능한 상황의 가정을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는 방식을 통해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39. ㉠ ~ ㉞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호소하고자 하는 절박한 태도가 나타난다.
- ② ㉡: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렵고 요청하지 않기도 어려운 곤혹스러운 상황이 나타난다.
- ③ ㉢: 외부 세계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던 과거의 행적이 나타난다.
- ④ ㉣: 상대가 하는 말의 내용에 대해 의아하게 여기는 마음이 나타난다.
- ⑤ ㉞: 같은 대상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다투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난다.

40. ㉠과 ㉞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대상을 이해하는 계기가 된 것이고, ㉞은 대상에 대한 오해가 반영된 것이다.
- ② ㉠은 대상에 대한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고, ㉞은 대상에 대한 예찬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 ③ ㉠은 대상에 대한 관조적 자세가 드러난 것이고, ㉞은 대상에 대한 성찰적 자세가 드러난 것이다.
- ④ ㉠은 대상과의 갈등이 해결된 이유가 되는 것이고, ㉞은 대상에 대한 내적 갈등이 유발된 원인이 되는 것이다.
- ⑤ ㉠은 대상의 상태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고, ㉞은 대상의 형편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 있는 것이다.

41.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조선 시대 관직에 오른 사대부들은 임금에게 충성하고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는 유교 윤리에 따라 백성을 교화하고 임금에게 간언해야 하는 책무가 있었다. (가)와 (나)에는 지방관으로서 관할 지역을 순시했던 작가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가)에는 작가가 백성들의 삶을 인식하고 백성들에게 도덕적인 삶을 권면하는 태도가, (나)에는 작가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임금이 유념해야 할 교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나 있다.

- ① (가)에서 ‘남은 이삭’조차 ‘빈 껍질뿐’인 ‘병마로 짓밟은 듯’한 ‘밭 이랑’을 ‘돌아보’는 것에서 백성들의 어려운 삶을 살피는 작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가)에서 ‘천은을 잊지’ 않고 ‘부자형제 상애하’며 ‘도리’를 다하면 ‘빈천을 벗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에서 백성들이 유교 이념에 따른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작가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군.
- ③ (나)에서 ‘말마다 아첨하며 일마다 좇’는 자들이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해’쳐 ‘나라가 그에 따라 멸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에서 임금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군.
- ④ (가)에서 ‘우리 임금’이 ‘추우신’지 염려하는 모습과 (나)에서 ‘임금으로 하여금’ ‘좋아하는 것을 손에서 놓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에서 임금이 대한 작가의 충성심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가)에서 백성의 ‘간고’를 ‘어이 모르’겠느냐며 ‘슬프다’고 하는 것과 (나)에서 ‘억조 백성의 목숨’이 달린 ‘임금’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에서 관직자로서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는 작가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군.

[42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유씨 대로하여 꾸짖어 왈,
 “네 나의 좋은 말을 듣지 아니하니 어찌 자식의 도리이며, 네 입으로 비록 강한 체하나 금야에 겁척할 도리 있으리니, 네 그를 장차 어찌할쏘냐?”
 이처럼 어르며 무수히 구박하고 돌아가거늘, 소저가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계교를 생각하더니, 이윽고 수악이 들어와 가만히 말하여 왈,
 “금야에 유택이 여차여차하리니, 소저는 바빠 피신할 방략을 행하소서.”
 소저가 이 말을 듣고 혼비백산하여 아무리 할 줄 모르다가 문득 부친의 유서를 생각하고 급히 떼어 보니 하였으되,
 ‘너의 계모 유씨는 본디 착하지 못한지라. 만일 너를 꺾박하는 일이 있거든 남북을 개착하고 태화산 송녕관을 찾아가면 자연 구할 사람이 있으리라.’
 하였거늘, 소저가 간필에 즉시 시비 춘매를 불러 수말(首末)을 이르고 바빠 남북을 고쳐 입고 후원 문을 열고 달아나니라.
 차야에 유택이 유씨의 말을 듣고 밤 들기를 기다려 가만히 소저의 침소를 담으로 넘어 돌입하니 사창에 등불이 희미하고 인적이 고요하거늘,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소저의 형영(形影)이 없는지라. 대경실색하여 무로히 돌아와 유씨에게 ㉠의 사연을 전하니, 유씨 또한 놀라며 소저의 도망함을 통탄히 여기더라.

차설, 화소저가 춘매를 데리고 길에 올라 태화산을 찾아갈 새, 여러 날 만에 한곳에 다다르니 산천은 수려하고 경계 절승하거늘, 노주가 길가에 앉아 쉬더니 문득 한 노파가 광우리 옆에 끼고 내려오거늘, 춘매가 나아가 예하고 문왈,
 “우리는 태화산을 찾아가더니, 길을 알지 못하여 감히 묻나니, 바라건대 노랑(老娘)은 밝히 가르치소서.”
 노파가 황망히 답례하며 왈,
 “이 산이 곧 태화산이어니와 양위공자(兩位公子)는 누구를 찾아 이에 이르시뇨?”
 춘매 왈,
 “우리는 태주 사람으로 송녕관을 찾아가노라.”
 노파가 왈,
 “연즉 벽하선자를 찾아가시는도다.”
 소저가 문왈,
 “벽하선자는 어떤 사람이뇨?”
 노파가 왈,
 “저 송녕관은 송나라 진종황제 시절에 지은 도관이요, 그 가운데 수십 명 여관(女冠)이 있어 선술(仙術)을 공부하더니, 십년 전에 벽하선자가 서천으로조차 수도하며 여관 등을 가르치매 학술이 고명(高明)하여 능히 단사(丹沙)를 화하여 황금을 만든다 하더이다.”
 소저가 이 말을 듣고 대희하여 즉시 노파를 작별하고 산상을 향하여 수리를 행하니, 상운채무(祥雲彩霧)가 잠긴 곳에 일좌누각이 반공에 표묘(縹緲)하며*, 창송취죽이 울울한 곳에 청학백록이 무리 지어 왕래하며 종경소리 은은히 들리니 짐짓 삼산별계(三山別界)요, 신선동천(神仙洞天)이라.
 나아가 도관 앞에 다다르니, 두어 여관이 화잠채의(花簪彩衣)로 나와 맞으며 왈,
 “그대 등은 태주로서 오시느뇨?”
 소저가 경문 왈,
 “여관이 어찌 아느뇨?”
 여관이 미소 왈,
 “우리 선생이 말씀하시되, 오늘 미시에 태주 귀객 양인이 오리라 하시기로 아노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벽하선자에게 가르침을 받은 화소저와 춘매는 과거에 급제하고 엄답이 명나라를 침략하자 이를 막기 위해 출병한다.

선봉장 경태 대로하여 창을 두르며 말을 놓아 소낭자로 더불어 어우러져 싸워 십여 합에 칼소리 쟁연하며 경태의 머리 금광을 쫓아 떨어지니, 명진 장졸이 상흔낙담하여 감히 싸울 자가 없는지라. 소낭자가 크게 외쳐 왈,
 “명제는 빨리 항복하여 잔명을 보전하라.”
 하니, 상이 방성대곡하시고 좌우 제신이 서로 붙들고 통곡하니, 그 경색의 처량함을 차마 보지 못할러라.
 각설, 화원수가 매시랑으로 더불어 군사를 거느려 대동부 성하에 이르러 보니, 적장은 소낭자가 아니요, 이에 첩목탐이라. 원수가 대로하여 말을 내몰아 첩목탐과 싸워 일합에 그 머리를 베니 여중이 사산분궤(四散奔潰)하거늘, 원수가 성에 들어가 쉬더니 익일 효두에 탐마(探馬)가 보하되, ‘거야에 적병이 선화부를 함몰하고 천자는 어디로 가신지 모른다’ 하거늘, 원수가 대경하여 매총병더러 왈,
 “내 그릇 소낭자의 계교에 속아 이곳에 왔는지라. 이제 내 단기*로 먼저 가 황상을 구하리니, 사제는 군사를 거느려 뒤를

쫓아오라.”

하고, 급히 말을 달려 선화부를 향하여 오더니, 길에서 피란하는 백성을 만나 천자의 소식을 물으니 대답하되,

“작야 삼경에 적병이 선화부를 파하매, 천자가 서문을 나 백자로 가셨다.”

하거늘, 원수가 ㉞의 말을 듣고 천지 아득하여 빨리 행하여 백하에 다다르니, 과연 천자가 여러 겹에 싸여 십분 위태하신지라.

원수가 분노하여 소리를 크게 지르며 자전금을 둘러 적진을 짓쳐 들어가며 적장과 적줄을 썩은 풀 베듯 하니, 적진 장졸이 불우지변(不虞之變)을 만나 사면으로 흩어지는지라.

적장 첩목탑이 대로하여 창을 둘러 원수를 맞아 싸워 사오함에 원수의 칼이 빛나며 첩목탑의 머리 땅에 떨어지니, 소낭자와 엄답이 이를 보고 분기충천하여 일시에 내달아 원수와 더불어 싸우더니, 문득 함성이 대진하며 매총병의 군마가 이르러 엄살하니 소낭자와 엄답이 군을 거두어 돌아가거늘, 원수와 총병이 천자를 구하여 피시고 대동부로 향하여 갈 새 헤어졌던 장졸이 찾아 모이거늘, 성에 들어가 군마를 정돈하고 상이 원수더러 왈,

“경은 하늘이 명실을 위하여 내신 사람이로다.”

하시고, 이에 그 벼슬을 문연각태학사 겸 천하병마대도독을 하이시고, 매총병으로 병부상서 겸 부도독을 하이시고 금백을 후히 상사하시니, 양인이 고사하되 상이 불운하시다.

— 작자 미상, 「음양옥지환(陰陽玉指環)」 —

* 표묘하며: 어렵듯하며.
* 단기: 혼자서 말을 타고 감.

4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개입하여 주관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예화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대화와 삽입된 노래를 통해 인물들의 심회를 나타내고 있다.
- ④ 인물의 외양을 과장되게 묘사하여 비극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우화적 기법을 활용하여 당대의 현실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43.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소저의 부친은 유씨가 본래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 ② 화소저와 춘매는 태화산에서 노파를 만나게 된다.
- ③ 소낭자는 경태와의 싸움에서 이긴 후 명제의 항복을 요구한다.
- ④ 소낭자의 계교에 속아서 원수는 대동부 성하를 떠나게 된다.
- ⑤ 소낭자와 엄답은 매총병의 군마가 나타난 뒤 물러나게 된다.

44. ㉞, ㉟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㉞에는 청자를 위협에 빠뜨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② ㉟에는 청자를 염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③ ㉞에는 ㉟와 달리 청자가 원했던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 ④ ㉟에는 ㉞와 달리 청자를 회유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 ⑤ ㉞와 ㉟에는 모두 청자가 알지 못했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따르는 영웅 소설에서 주인공은 두 번의 위기를 겪는다. 첫 번째 위기는 개인적 차원의 위기로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인공은 초월적 능력을 지닌 조력자를 만나게 된다. 두 번째로는 국가적 차원의 위기로서 주인공은 비범한 능력을 발휘해 이를 극복하고 사회적 성취를 이루게 된다. 「음양옥지환」은 이러한 영웅 소설의 구조를 따르면서 영웅적 주인공으로 남장을 한 여성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 ① 유씨가 소저를 무수히 구박하여 소저가 집을 떠나게 된다는 것에서 주인공의 개인적 위기가 계모에 의한 가족 내 갈등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소저가 유택을 피하기 위한 방책으로 남장을 생각해 낸 것에서 주인공이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혜를 발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부친의 유서에 따라 찾아간 벽하선자가 이미 소저가 올 것을 알고 있다는 것에서 주인공이 초월적 능력을 지닌 조력자를 만나게 됨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원수가 적장과 적줄을 순식간에 무찌르고 천자를 구한다는 것에서 주인공이 비범한 능력을 바탕으로 영웅적 면모를 발휘함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천자가 하늘이 명실을 위하여 낸 사람이라며 원수에게 벼슬을 하사한다는 것에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한 주인공이 사회적 성취를 얻게 됨을 확인할 수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